

언어정책에 관한 비엔나 학술대회 강령- 사회적 참여 강화를 위한 11+1 가지 촉구

언어정책에 관한 본 강령은 비엔나에서 열릴 제17회 국제독일어교육자대회(IDT 2022)를 앞두고 국제 전문가 그룹(링크)이 수립한 강령입니다. 본 강령은 IDT 2022가 열려 있는 동안 유효하며 2022년 8월 20일 폐회식 이후 효력이 종료됩니다. 본 강령은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실무 전문가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 모토인 [*mit.sprache.teil.haben](https://www.mit.sprache.teil.haben)을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언어 교수·학습, 그리고 전문지식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이 추구하는 최상위 목표는 사회 결정 과정에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동등한 권리로의 사회 활동을 가능케 하고 이를 촉진하는 논증력의 계발에 있습니다.

1. 독일어 학습은 **다국어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습자는 본인의 다국어 및 다문화적 경험과 역량을 수업에 가지고 오며, 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수업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언어정책은 사회적·개인적 자원, 세계적·지역적 관점 및 안건을 고려하여, 이 점을 지지해야 합니다. 사회의 언어적·문화적 이질성은 학습 자료와 교육 구성, 커리큘럼, 수업 내용 선택, 교육·재교육·평생교육, 연구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국제협력**은 재정적·구조적으로 간편화 및 장려되어야 합니다. 국제협력은 모든 협력 주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교류 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달성되므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교류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DaF(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및/또는 DaZ(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전문가 집단에게는 보다 강화된 지위를 기반으로 네트워킹 및 전문성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지원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3. 독일어 교수·학습의 대원칙은 **역량증진**에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사회와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관심사와 수요는 맞춤형으로, 그리고 풍부한 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학습자는 '인적 자원'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업별 독일어 수업 및 성인 대상 교육을 포함한 언어 교수·학습 전반에 적용됩니다.
4. 언어 레퍼토리는 사회적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은 **이민자의 삶의 현실**과 그들의 직업 및 일상적 필요에 맞추어야 합니다. 언어 학습은 체류법적 문제와 분리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또는 사회 복지 사업에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언어가 차별의 도구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 독일어 수업**에서는 학생의 **총 언어 레퍼토리**를 자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언어 학습이 전문지식 학습 및 전문지식을 넘어서는 역량으로 이어지는 매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커리큘럼과 학습 목표는 이에 맞게 수립해야 하며, 언어 지원 및 교육은 취학 전 단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6. 대학 교육에서는 학생, 교수자, 연구자의 이동성 및 협력 기회 증대를 위해 국가 지원을 통해 **장학 프로그램**과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동성 및 협력 기회 증대는 성공적인 언어 학습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각자 원하는, 특히 독일어권 국가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및 연구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독점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DaF/DaZ분야의 연구는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정책은 DaF/DaZ 연구 결과를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실현하여야 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초학문적 및 국제적 협력은 세계 전문가 사회 및 일반 대중에 대한 학문적 소통 개방만큼 장려되어야 합니다.
8. 전 세계 **교강사**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각 과목의 최신 발전 현황과 교수·학습 문화에 따른 지역·제도적 차이가 고려된 **고급 수준의 자격 취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이한 재정 여건이 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취득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지원해야 하고, 각 직업 내에서 해당 취득 사실이 입증되고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9. 교내 및 교외 **교강사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임금, 수업 시간과 수업 준비·정리 시간 간의 균형,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과 추가 자격 기회가 있는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0. **디지털 전환**은 언어 교수·학습과 관련해 현장 수업에서, 자습 환경에서, 가상 교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디지털화는 연구와 언어 정책 분야의 국제적 협력 또한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며, 현장 인적 자원을 감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화가 기존의 격차를 강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장비, 재교육 등을 통해 누구든 디지털 세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1. 독일어 학습은 미학적·문화 성찰적 학습을 아우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과 같은 토론을 가능케 하는 언어 학습입니다. 언어 학습은 이러한 논증력의 증진을 통해 **평화와 비폭력 문화**,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언어 학습이 **지속가능한 계발** 및 범세계적 태도 함양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어 정책은 더 이상 기존과 같이 교차적인 분야로만 간주하지 말고, 타 정책 분야와의 논의에서 동등하게 취급되는 하나의 **독립적 정책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립적 정책 분야로서의 언어 정책 수립 및 구성은 초국가적 및 비국가적 기관 및 네트워크의 과제이자 동시에 개별 국가의 과제여야 하며, 항상 사회·개인의 다국어성과 참여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성일: 2022년 8월 9일